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ges of Developmental Bibliotherapy in School Libraries

이 서 빈 (Seo-Vin Lee)*

소 병 문 (Byoung-Moon So)**

< 목 차 >

I. 서론	IV.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제안
II. 독서치료의 이론적 배경	
III.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V. 결론 및 제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치료의 단계를 제안하고 모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의 명칭, 유형, 원리를 살펴보고, 국내외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에 적용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예방적·교육적 성격이 강한 발달적 독서치료로 운영되며, 독서치료의 내용은 자아 이해, 감정 조절, 관계 형성 등 정서적 영역을 포함한 CASEL의 사회정서학습(SEL)을 적용하였다. 기존 발달적 독서치료 모형(Hynes와 Hynes-Berry, Doll과 Doll)의 단계와 독서치료의 원리(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를 통합한 다음 학교 독서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서 과정(독서 전, 중, 후)을 참고해 독서 이후 '표현하기' 단계를 추가하였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는 분석하기-선정하기-읽기-표현하기의 네 단계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발달적독서치료, 독서치료단계, 독서치료,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d model the stages of reading therapy that school librarians can implement in school libraries. To achieve this, a review of the literature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erminology, types, and principles of bibliotherapy, and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bibliotherapy programs in library settings in order to identify elements applicable to school library practice. Additionally, a surve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chool librarians nationwide regarding reading therapy. The reading therapy in school libraries is characterized as preventive and educational, functioning as developmental reading therapy. The content of reading therapy incorporates emotional domains, such as self-understanding, emotion regul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based on CASEL'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framework. Following the integration of existing developmental reading therapy models (Hynes and Hynes-Berry, Doll and Doll) and the principles of reading therapy (identification-catharsis-insight), an additional stage of 'expression' was introduced after the reading process, referencing the stages of reading (before, during, and after reading) to facilitate application to school reading education. The proposed stages of reading therapy in school libraries consist of four phases: analyzing, selecting, reading, and expressing.

KEYWORDS: Developmental Bibliotherapy, Stages of Bibliotherapy, Bibliotherapy, Teacher Librarian, School Library

*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학 전공(seovin518@gmail.com / ISNI 0000 0005 2810 305X) (제1저자)

** 국립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장

(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6년 2월 19일 • 최초심사: 2026년 3월 6일 • 게재확정: 2026년 3월 1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1), 289-315,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1.202603.289>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학교 교육의 내용이 교과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정서의 돌봄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의 웹진 '교육개발' 2025년 봄호는 사회정서교육을 '특별기획' 주제로 다뤘다. 주된 내용은 학교 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온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으며, 학교 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사회성 인간관계 교육'으로 응답하였고, 필요한 학습자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과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파악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16-30).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할 것과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마음치유학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25).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은 교수학습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학생들의 소속감 조성 및 휴식과 재충전 기능 등을 제공하는 주요한 정서적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Merga, 2022). 또한 지적, 정서적 적응을 돕는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 독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처를 위로받으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인성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다(최지은, 2023, 42). 아울러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머무르며 정서적 회복과 자기조절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안전 기지(secure base)'로 이해될 수 있다(홍명아, 심원식, 2025). 이는 학교도서관이 단위 학교 내 학생의 정서적 회복과 적응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치료는 학교도서관이 단위 학교 내 정서적 '안전 기지(secure base)'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활동이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치료(안정)를 제공함을 의미하며, 치료의 내용은 대인관계 형성, 학교 환경에 대한 심리적 수용,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자기관리 능력 등 주로 사회정서 역량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운영과 교육, 그리고 이론적 연구는 부족하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연구한 최지은(2023, 53-58)은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의 2/3가 동의했으나, 실제 운영 여부는 전체 응답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도 독서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역시 부족하다. 홍현진 외(2021, 22)와 백재은(2022, 391)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문헌정보교육과 포함)가 설치된 25개교 가운데 독서치료를 전문교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2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대학은 독서교육 관련 교과목의 일부 내용으로만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통한 정서 돌봄과 치료 경험을 프로그램화한 것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교육의 이론적 내용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의 흐름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교육 조직이다. 학교 교육의 대상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영역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독서치료는 학교도서관이 단위 학교의 사회·정서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다. 단위 학교의 사회·정서적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독서치료와 관련된 어떤 이론과 실재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치료의 단계를 구획하고, 각 단계별 공통의 활동을 제안하는 데 있다. 독서치료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며 각 현장에 적용되는 독서 활동이다. 분야별 독서치료는 주관 인적자원, 공간, 대상, 기간, 활용 매체 유형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교도서관만의 독서치료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먼저 독서치료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명칭, 유형, 원리 등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외의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치료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학교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았다. 학교도서관 독서치료는 교육적 맥락에서 실현되는 만큼 교육계의 독서치료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 4편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동향과 주요 주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독서치료 운영의 주체인 사서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선 문헌 및 사례 연구가 독서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는 과정이었다면, 사서교사의 인식 조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방법은 독서치료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 연구와 국내외의 도서관,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는 독서치료의 사례 연구,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단계	내용	방법
1단계	독서치료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독서치료 명칭, 유형, 원리 등 이론적 배경 파악	문헌 검토
2단계	운영 주체에 따른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 조사 - 국내외 해외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조사 -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유형 조사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 조사 및 분석
3단계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조사 - 독서치료 관련 내용의 학교도서관 적용 가능성 파악 - 독서치료의 학교도서관 적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 조사
4단계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 및 적용 모형 제안	

II. 독서치료의 이론적 배경

1. 독서치료의 명칭과 독서치료의 원리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어원은 책, 문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biblio'와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herapeia'가 합쳐진 용어이며 그 뜻은 '책을 이용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정도가 된다. 또한 이 어원에는 문학(독서 자료)은 치료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선택된 독서 자료의 내용이나 그 속에 내재된 의미·생각이 책읽기나 독후 활동을 통해 독자의 발달적 과정에서의 문제 혹은 특정한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정신적·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2024, 25).

독서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논의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유중희가 Hannigan의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Pharmacist or Bibliotherapist?』(1962)를 '도서관과 비브리오세라피'로 번역하면서 독서치료 개념을 소개하였고, 이후 1968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 김병수가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다(황금숙, 2005, 12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학교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김정근, 200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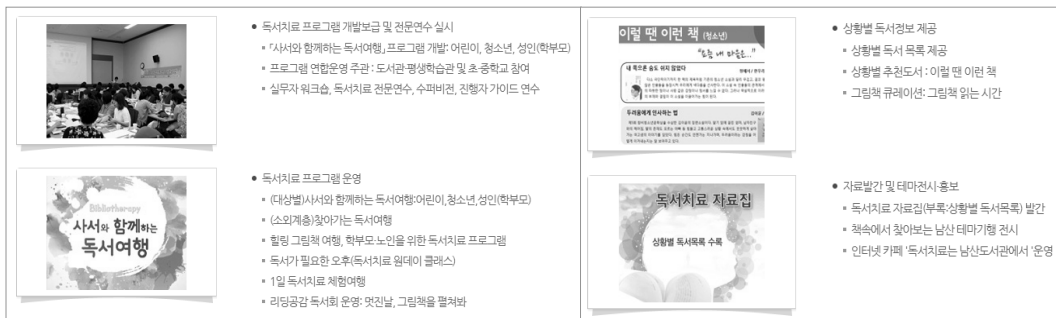
독서치료와 함께 쓰이는 또다른 명칭인 독서요법(讀書療法)은 1937년 일본에서 bibliotherapy를 번역 용어로, 현재의 독서치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2024, 26). 국내에서는 독서요법과 독서치료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독서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독서치료와 관련된 명칭은 전공 분야나 연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독서치료의 원리는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구분한 동일시(identification)의 원리, 카타르시스(catharsis)의 원리, 통찰(insight)의 원리를 공통으로 한다(변우열, 2015, 835-836). 동일시는 독서치료 대상 도서의 인물, 사건에 자신의 감정을 전이(轉移)하는 단계이며, 카타르시스는 전이를 통해 얻은 자신의 감정을 문장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며, 통찰은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르게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 독서치료의 과정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할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 역시 이 원리를 토대로 설정해야 한다.

2. 국내·외 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독서치료 역시 활발히 운영되는 대표적인 독서 활동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는 대부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주관하며, 현재까지 운영되는 독서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은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차시별 주제에 적합한 주도서 및 참고자료(시, 노래, 영상물, 만화, 영화, 그림책 등)를 발굴하고, 이에 연계된 독후 활동과 발문을 포함한 운영안을 구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내부 분과위원회 검토, 외부 전문가의 슈퍼비전, 사서 체협 교실 운영 등을 거쳐 운영안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최종 확정된 프로그램 운영안을 참여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렇게 공유된 프로그램 운영안은 관내 참여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운영 수준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주제에 맞는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구축한 점과 단순한 개별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 검토와 공유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 남산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

(출처: <https://nslib.sen.go.kr/nslib/html.do?menuidx=107>, cited 2026.2)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양산도서관은 특화 주제와 연계한 연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치료’를 제하(題下)로 전용 자료실을 마련하고,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집의 연 1회 배포, 자료실 내 독서치료 코너 구성, 독서치료 특별강연회, 신착도서 안내 등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도 특화 주제는 ‘음악’과 연계된 초등학교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양산도서관은 체계적 자료 투자와 큐레이션 기반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자료 접근성 확보를 통해 공공도서관 중심의 독서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 창원시 명곡도서관, 연천도서관 등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자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빈도와 규모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독서치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운영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국외 도서관의 독서치료 역시 5년 내의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대표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으

로는 '리딩 웰-책처방'(Reading Well-Books on Prescriptio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독서진흥원'(The Reading Agency)이 영국 공공도서관 서비스네트워크인 '도서관 연합'(Libraries Connected)과 협력하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및 '웨일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의사, 연계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보건 복지 전문가의 처방이나 일반 대중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연계 도서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게 한다. 2013년 도입 이후 성인의 정신건강, 치매, 아동·청소년, 만성질환 관리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의 도서 목록을 구축하였으며, 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이 이용하였다. 최근 조사에서 이용자의 9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보건 전문가의 89%는 임상 외 지원 자원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¹⁾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Victoria)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치료(Bibliotherapy with State Library Victori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 이 프로그램은 시와 이야기를 낭독하는 형식의 팟캐스트 시리즈로 청취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내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에는 실천 가능한 활동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과 함께하는 아동 독서치료

(출처: <https://www.slv.vic.gov.au/bibliotherapy>, cited 2026.2)

미국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뉴욕주의 오시닝 공공도서관(Ossining Public Library)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특정 요일에 '독서치료 북클럽'

1) <https://socialprescribingacademy.org.uk/resources/books-on-prescription>, [cited 2026, 01]

2) <https://www.slv.vic.gov.au/bibliotherapy> [cited 2026, 01]

럽'(Bibliotherapy Book Club)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치료 개념을 토대로 일상의 다양한 도전과제를 문학 작품을 통해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참가자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자기 경험과 관련된 텍스트나 등장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정서적 공감과 내적 성찰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적 독서나 일반 북클럽과 차별화되며, 초기 모임에서 참가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이후 만남에서 활용할 맞춤형 텍스트가 선정된다. 이를 통해 개별적 필요를 반영한 독서치료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임상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집단은 아니며,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임상적·예방적 독서치료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³⁾

크로아티아는 국제 프로젝트 TRACE(Traditional Children's Stories for a Common Future)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워크숍이 열렸으며, 그 결과물은 크로아티아 사서 평생교육원(Centar za stalno stručno usavršavanje knjižničara u RH)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공유되었다. 이 워크숍은 아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의견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접근법은 현대화된 소크라틱 방법(Modernized Socratic Method)에 기반하였다. 또한 워크숍에서 여러 방법을 결합하고 연속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아동자료실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išćan & Krpan, 2023). 이상의 해외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는 주제·분야별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구축한 것과 전공의,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독서치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도서관의 독서치료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및 특징	
국내	남산도서관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차시별 독서자료목록 제공, 독서치료 프로그램안의 제작과 공유
	양산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전용 자료실 운영, 상황별 도서 목록, 독서치료 강연
국외	영국	Reading Well-Books on Prescription	성인 정신건강, 치매, 아동·청소년, 만성질환 관리 등 5개 분야 도서 목록 제공
	호주	Bibliotherapy with State Library Victoria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 시와 이야기 낭독 형식의 팟캐스트 시리즈 및 실천 활동 제공
	미국	Bibliotherapy Book Club	참가자 맞춤형 도서를 선정한 뒤, 낭독하고 토론하는 북클럽 운영
	크로아티아	Traditional Children's Stories for a Common Future	현대화된 소크라틱 방법 기반의 아동 독서치료 워크숍 운영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독서치료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독서치료와 관련된 권장 도서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독서(치료)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3) <https://ossining.librarycalendar.com/event/bibliotherapy-book-group-15726> [cited 2026. 01]

임상적·의학적 독서치료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독서치료 관련 도서 목록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독서치료의 성격과 내용

독서치료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상담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된다. 최근 5년 내 독서치료 관련 연구 성과를 메타 분석한 4편의 논문을 선정해 독서치료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과 학교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치료 내용과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환주와 오영섭(2021, 312-315)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 144편을 분석한 연구 성과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독서치료의 유형은 주로 발달적·예방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88.17%)으로 파악됐다. 발달적·예방적 성격의 독서치료는 읽기 자료와 토론 활동을 통해 학령기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자아정체성 형성,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학습태도 형성 등을 돕는다. 또한 독서치료의 목적은 자기 인식 및 정서와 관련된 '정의적 측면'(62.5%)이 가장 높았으며, 또래 집단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문화적 측면'(32.6%)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숙기와 김세화(2022, 138-144)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309편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해 독서치료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한 토픽명은 발달적 독서치료, 성인 독자의 독서치료, 정서 문제 기반의 독서치료, 자기 서사 기반의 문학치료 등으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 주제는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형성 등 주로 발달적 독서치료와 관련된 토픽이 높은 빈도로 출현함을 확인하였다.

배경임(2023, 1690-1691)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382편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독서치료의 효과성 분석, 학교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야기나 텍스트 그리고 그림책에 의한 정서 돌봄 등이 주된 토픽으로 파악됐다. 윤의연(2025, 193-195)은 1960년부터 2024년 사이 독서치료를 주제로 출판된 리뷰 및 메타 분석 논문 28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로, 연구 주제는 대상 논문의 64%가 발달적 독서치료에 편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21%에 이르는 임상적 독서치료 역시 의료계열의 참여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제언 사항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의 실천적 활성화 방향이 필요하며 독서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연수 체계 구축, 학교도서관과 상담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사회정서학습과 연계된 독서치료 커리큘럼의 제도화 등이 있다.

〈표 3〉 독서치료 연구 경향 분석

대상 논문	분석 편수	독서치료의 성격	분석 내용
이환주와 오영섭 (2021)	학위논문 144편	발달적·예방적 성격	자아정체성 형성,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학습태도 형성 등 정의적, 사회문화적 영역
최승기와 김세화 (2022)	학술지 논문 309편	발달적 독서치료, 문학 기반의 독서치료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형성 등 정서 사회적 영역
배경임 (2023)	학술지 논문 382편	독서치료의 효과성 분석,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문학자료를 통한 정서적 돌봄
윤의연 (2025)	리뷰 및 메타논문 28편	발달적 독서치료	전문 연구 체계 구축, 학교도서관과 상담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사회정서학습과 연계한 독서치료 커리큘럼의 제도화

독서치료 연구 성과를 메타 분석한 4편의 논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 현장의 독서치료는 주로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발달적 독서치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심 주제는 학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정서 지원과 사회성 함양인 것을 확인하였다.

Ⅲ.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1.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서 실현된 독서치료는 학교급별, 대상별, 규모별, 주제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치료 과정을 제한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내·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는 독서치료 관련 선행 연구를 검색한 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키워드로 포함하는 학위, 학술지 논문을 선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호선과 조미아(2020)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김은승과 조미아(2017)는 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독서치료는 대상 도서를 읽은 후 집단과 모둠을 3단계로 교차하며 독서 활동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최운(2022)은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대상 도서를 필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권정희(2023)는 고등학생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시(詩)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프로그램화한 것이 특징이다. 책을 읽은 후 상호작용 놀이나 그림책을 활용한 시쓰기와 같이 학교급별,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독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구분된다. 또한 독서치료의 대상 도서 선정은 기존 구축된

독서치료 자료 목록을 활용하였다. 남산도서관 독서치료 자료실, 한국독서치료학회, 그림책 박물관, 열린 어린이, 어린이도서 연구회 등에서 이미 제시한 상황별 추천 도서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는 독서치료 주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의 JCSP Demonstration Library Project는 정신건강을 주제로 선별된 도서 113권을 소개하는 ‘내 마음 읽기’(Read Your Mind) 북 컬렉션을 학교도서관에 구축하고 JCSP 협약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이 컬렉션은 청소년 정신건강 기관인 JIGSAW(관계 기반 상담 기관)와의 협업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모든 도서는 JIGSAW 소속 임상가들이 평가하고 추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문해력(mental health literacy)의 확산과 학교도서관의 정서적 지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도서관이 정신·건강 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⁴⁾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웨스트버러(Westborough) 고등학교는 학교도서관을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사회적 허브’(psychosocial hub)로 기능하도록 재편되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는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복지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과 상담 연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요가와 시 낭송 및 창작 프로그램, 그리고 독서치료 활동이 포함되었다. 또한 버지니아 주 샬로츠빌(Charlottesville)의 Community Lab은 상담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요구를 파악해 사서교사에게 전달하고, 사서교사는 이를 반영해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독서치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도서를 읽은 후 상담교사 또는 사서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적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장이 되었으며,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는 ‘심리사회적 안전망’(psycho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⁵⁾

싱가포르의 중등학교 도서관 재구성 과정을 연구한 Loh와 Binny(2024)는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자기 주도성 강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사회정서적 웰빙 거점으로 인정하고 지속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Hayes(2023)는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단순한 독자 자문(reader's advisory)을 넘어 정서 지원 전략의 설계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https://jcsplibraries.com/2019/10/13/read-your-mind-launches-in-all-jcsp-libraries/> [cited 2026. 01]

5) <https://www.slj.com/story/School-librarian-and-counselor-team-up-bibliotherapy-program-to-help-student-mental-health> [cited 2026. 01]

국의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운영 사례는 학교도서관이 학습 지원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녕과 사회정서 학습의 지원뿐만 아니라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한 교육 과제로 부각되면서 교사, 상담 교사,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독서치료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국외 독서치료 사례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와 정서 회복,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학교도서관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독서치료 단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독서치료의 운영 주체인 사서교사는 독서치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주요한 연구 문제이다. 이는 사서교사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결과를 참고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예방적 성향이 짙은 발달적 독서치료 유형에 가까우며, 독서치료 주체는 전반적으로 정서적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학교도서관에서 구현 가능한 독서치료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가는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연구 내용을 포함해 독서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3개 영역, 10개의 문항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사서교사의 독서치료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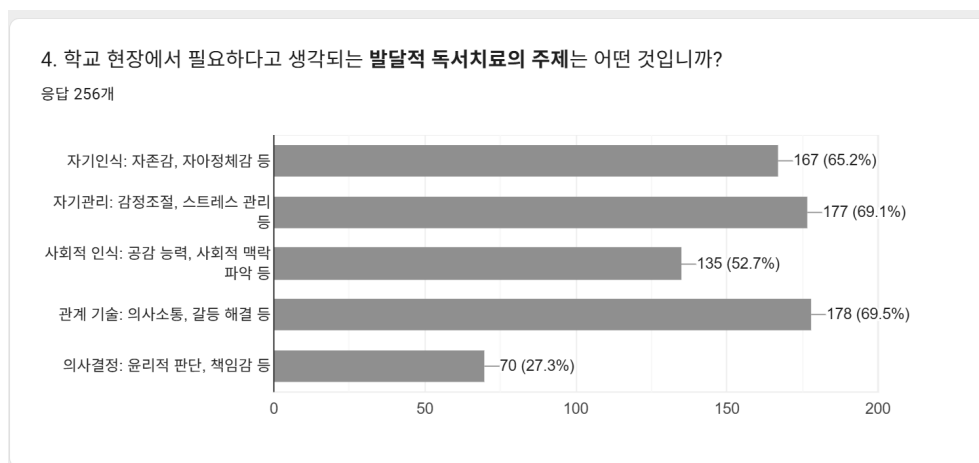
범주	설문 내용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독서치료 필요성 인식	
	독서치료 서비스 내용	
	독서치료 운영 계획	
	독서치료에 적합한 주제	
독서치료의 운영 여부	운영	독서치료 자료의 선정 과정
		운영의 어려움
	미운영	미운영의 이유
독서치료 교육연수 경험 및 참여	교육연수 주관 기관	
	학교도서관을 위한 교육연수 개설에의 참여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전국 단위의 사서교사 조직의 협조를 받아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2주간 Google forms를 통하여 실행하였

으며 전국의 사서교사 256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경력 분포를 살펴보면,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의 사서교사가 37.9%(9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년 미만 경력 사서교사가 32.4%(83명), 15년 이상 경력 사서교사가 29.7%(76명)로 나타났다. 이는 초임, 중견, 고경력 사서교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 조사 결과가 특정 경력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학교도서관 현장의 전반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응답을 중심으로 하였다. 먼저 독서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응답자의 58.6%(150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17.5%(59명)만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이와 연계한 질문으로 두 번째 범주인 실제 독서치료를 운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78.5%(201명)가 독서치료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문으로 독서치료를 운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를 ‘독서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74.1%, 149명)과 ‘독서치료를 프로그램화하기 어려움’(44.3%, 89명)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독서치료 미운영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소극성보다는 전문성 형성 기회의 부족과 이를 지원하는 구조적 여건의 미비에 있음으로 해석된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는 앞선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인 영역과 관련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정서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잘 알려진 사회정서학습 영역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은 <그림 3>과 같으며, 사회정서학습의 5개 영역 가운데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이 전체 사서교사 응답의 과반을 넘겼다. 이는 학교 현장의 독서치료 주제가 임상적 치료 개입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적·발달적 서비스에 중점을 둘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그림 3> 발달적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응답 예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하여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 과정에서 독서치료 관련 지식을 배우거나 실질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며 단위 학교에서 독서치료를 교육 프로그램화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의 주체로서 사회정서 영역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독서치료 관련 교육 연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94.5%(242명)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3.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모형

독서치료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기관적(institutional), 임상적(clinical), 발달적(developmental)으로 구분하거나(Lack, 1985; Rubin, 1979),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반응적 독서치료,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치료, 표현 중심의 독서치료로 구분하는(Gladding & Gladding, 1991)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독서치료의 유형 가운데 앞선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단위 학교에 운영되는 독서치료는 주로 발달적 독서치료로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일상의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독서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읽기 자료와 토론 활동을 통해 독자의 일반적인 인성 발달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학교, 도서관, 기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사서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가 설계하고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역시 사서를 중심으로 자기실현 프로그램이나 감수성 훈련 등으로 운영이 된다(변우열, 2015, 829). Rubin(1979, 243)이 제시한 발달적 독서치료의 특성(characteristics)이 학교도서관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대비해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발달적 독서치료의 특성(Rubin, 1979)과 학교도서관으로의 적용

특성	발달적 독서치료	학교도서관 적용
형식(format)	능동적, 자발적 집단	학급 단위, 모둠 단위로 구성
대상(client)	일반인 또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	전교생
의뢰자(contractor)	개인	학교장 또는 교사
치료자(therapist)	사서, 교사 또는 기타 전문가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용 자료(material used)	상상 문학/또는 교육 자료	학교도서관 자료
기법(technique)	자료 토론 (참가자의 반응과 통찰에 중점)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 활동
환경(setting)	지역사회	단위 학교
목표(goal)	정상 발달 및 자기실현	사회정서적 역량의 제고

발달적 독서치료의 과정 모형은 Hynes와 Hynes-Berry(1994)와 Doll과 Doll(1997)이 대표적이다. Hynes와 Hynes-Berry(1994, 29-39)는 발달적 독서치료의 과정을 인식, 고찰, 병치, 자기 적용으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는 독서치료를 통해 참여자가 문학 작품 속 인물과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며 점차 자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단계별 명칭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Hynes와 Hynes-Berry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단계	주요 내용
인식 (recognition)	- 작품 내 인물 또는 상황에 내포된 의미를 자각 -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동일시
고찰 (examination)	- 동일시한 감정과 자신의 경험 간의 관련성 성찰에서 의미를 탐색, 내면화
병치 (juxtaposition)	- 고찰을 통한 의미 파악과 기존 가치관, 태도와의 비교 - 둘의 차이에 따른 비판적 시각 형성
자기 적용 (application)	- 자신에게 의미를 찾는 과정

한편, Doll과 Doll(1997, 10-13)은 발달적 독서치료의 단계를 자료 선정, 자료 제시, 이해하기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료 선정 단계는 참여자의 흥미와 발달 수준, 정서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학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둘째, 자료 제시 단계에서는 선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읽기 및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수행하며, 참여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셋째, 이해 구축 단계는 참여자가 문학 작품 속 내용과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자기 경험과 연결하도록 돕는다. 역시 단계별 명칭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Doll과 Doll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단계	주요 내용
자료의 선정 (material selection)	- 독서 수준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도서 선정하기 -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기반으로 도서 선정하기
자료의 제시 (presentation materials)	- 내담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서를 제시하기 - 책을 읽는 과정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간 자료를 제시하기
이해 구축 (comprehension-building)	- 책 속의 문제와 등장인물을 탐색하도록 돕기 - 등장인물의 특정한 행동의 동기에 집중하기 - 책에 나타난 문제점, 제시된 해결책, 다른 해결책들의 결과 찾아보기 - 자신과 책 속의 등장인물들의 비슷한 점 찾아내도록 돕기

대표적인 발달적 독서치료의 과정 모형인 Hynes와 Hynes-Berry(1994)와 Doll과 Doll(1997)

은 단계별 내용의 공통점에 따라 병치한 후 모형별 과정의 주요한 특징을 대비하였다. Hynes와 Hynes-Berry(1994)는 독서치료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사용할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 없이 바로 4단계로 상세 구분한 독서 활동에 들어간다. 반면 Doll과 Doll(1997)은 독서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정하였지만 Hynes와 Hynes-Berry(1994) 과정 모형과 다르게 본격적인 독서 활동은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 단계로 통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발달적 독서치료 과정 모형의 내용을 공통점으로 대비해 중복한 후 독서치료의 원리와 독서의 단계에 대응해 발달적 독서치료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의 통합 과정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독서치료의 원리	독서 단계
Hynes와 Hynes-Berry (1994)	Doll과 Doll (1997)		
	자료 선정		독서전
	자료 제시		
인식	이해 구축	동일시 원리	독서중
고찰		카타르시스의 원리	
병치			
자기 적용		통찰의 원리	

4. 발달적 독서치료의 주제로서 사회정서학습(SEL)

단위 학교의 독서치료는 (전문적 임상 치료보다는) 건강한 자아의 성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발달적 독서치료로 운영되며 학생 개별의 문제 상황에 대한 전문적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임상적 독서치료와는 구분이 된다. 발달적 독서치료가 지향하는 건강한 자아의 성장은 오늘날 학교 환경에서는 ‘정서의 문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

OECD는 오늘날 아동, 청소년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험, 성적 등과 같은 인지 능력뿐 아니라 인내, 사회성, 자존감 등의 사회정서적 기술(social and emotional skills)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OECD, 2015). 또한 사회정서적 역량은 웰빙 향상, 문제행동 감소 등과 관련이 있고, 인지 능력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역량은 가르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정책과 교육 실천이 중요하다.

미국의 비영리교육단체인 ‘학업·사회·정서 학습 협의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CASEL)는 청소년기 꼭 갖춰야 할 사회정서적 역량을 ‘사회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으로 명명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정서학습은 교육과 인간 발달의 핵심적 부분으로 학습자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개인적·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며, 지원적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 있고 배려 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CASEL이 제시하는 사회정서학습은 <그림 4>와 같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위 학교를 둘러싼 교육 생태계까지 포함하였다(CASEL, 2026).



<그림 4> CASEL의 SEL 핵심 역량 모형

(출처: <https://casel.org/fundamentals-of-sel/what-is-the-casel-framework/>, cited 2026.2)

CASEL이 제시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영역에서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정서 조절과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된다.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개인의 목표를 설정·달성하며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과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은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인식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이해와 존중을 가능하게 한다. ‘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은 타인과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역량으로,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갈등 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정의
자기인식 (self-awareness)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 정체성, 강점 및 약점을 이해하는 능력
자기관리 (self-management)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목표를 설정·달성하며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
사회적 인식 (social awareness)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며,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의사소통, 갈등 해결 등을 수행하는 능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자신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능력

IV.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제안

1.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 구성에 필요한 조건 사항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학교급별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운영 사례는 있지만 학교 교육 환경을 고려한 독서치료의 공통 과정은 모형화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독서치료를 주제로 하는 문헌 연구와 국내외의 공공도서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 사례, 그리고 독서치료(발달적 독서치료) 모형의 분석,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에 관한 인식 조사 등을 연구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과정을 모형화하는데 필요한 조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대상에 따라 사회정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할 ‘발달적 독서치료’와 개별 정서적 문제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임상적 독서치료’로 구분하였다. 독서치료와 관련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에 따르면 단위 학교의 독서치료는 학생의 자아 성장과 정서 문제의 대응을 위한 발달적 독서치료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정신의학적인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적 성향이 강한 임상적 독서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임상적 독서치료는 학교도서관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니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와 협력을 통하여 개별 맞춤형 독서치료로 운영하고, 반드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를 발달적 독서치료로 성격을 규정한 만큼 독서치료의 내용 역시 사회·정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정서적 문제 상황의 전문적 치료가 아닌 사회성·정서·자아의 성장과 돌봄과 같은 예방을 지향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서적 영역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으로 CASEL의 사회정서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사회정서학습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내용으로 적합한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의사결정 영역을 제외한 남은 네 영역 모두 응답의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에 활용될 대상 도서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을 참고해 사회정서 영역별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구축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적 성격이 강한 발달적 독서치료를 운영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임상적 독서치료는 개인의 정서적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따라 이용자 분석에 따른 맞춤형 독서치료 도서를 선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전문상담교사)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발달적 독서치료 모형은 Hynes와 Hynes-Berry(1994)의 '인식-고찰-병치-자기 적용' 4단계와 Doll과 Doll(1997)의 '자료 선정-자료 제시-이해 구축' 3단계를 대상으로 내용이 동일한 단계를 중복해 발달적 독서치료의 공통 단계를 구성하였다. 여기에 독서치료의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대비해 독서치료 단계별 특성을 구분하였다.

다섯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독서교육의 구체적인 활동이므로 일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틀에서 단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모든 독서교육 활동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서 전, 중, 후'로 구분한다. 하지만 문헌 연구로 유도된 발달적 독서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 적용'(Hynes와 Hynes-Berry의 모형)과 '이해 구축'(Doll과 Doll의 모형)은 독서치료의 결과를 개인 내면 활동으로 종결하였다. 이 기존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로는 독서 후 활동을 설정할 수 없다. 일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느낌, 배움 등을 말, 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적용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에 '표현하기'를 추가하였다. 표현하기는 결국 독서치료의 카타르시스 원리를 변용한 것으로, 책읽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 내면에서 느낀 여러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면서 감정적 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표현하기 단계는 독서치료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안)

독서치료는 정서적 안정, 성장,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또한 단위 학교 내 전문상담과 연계가 가능한 점에서 학교도서관에 의미있는 독서 활동이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환경을 고려한 학교도서관만의 독서치료 관련 연구나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치료 모형과 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선제적 이론 연구로서 독서치료는 어떤 단계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독서치료를 주제로 하는 문헌 연구와 국내외 독서치료 사례 연구, 그리고 사서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독서치료는 발달적 독서치료로 운영되며 주제는 정서적 영역을 대상으로 함을 확인하였다. 학교도서관 역시 단위 학교에 속한 조직이기에 위 내용이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4.1의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 구성에 필요한 조건 사항을 적용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도서관에서의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안)

단계명	핵심 내용	이론적 근거
	SEL의 핵심 역량을 고려한 발달적 독서치료 도서 목록의 구축	국내·외 도서관 사례 /CASEL의 SEL /사서교사 대상 설문
(이용자) 분석하기	- 학급 단위를 대상으로 적합한 SEL의 핵심 역량을 분석함 - 개별 상담을 통한 사회정서 문제 상황을 분석함 (임상적)	CASEL의 'SEL'영역 /사서교사 대상 조사 /독서 전 활동
(도서) 선정하기	- SEL의 영역별 도서 목록에서 대상 도서군을 선정함 - 교내 전문상담교사와 연계해 이용자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상 도서를 선정해 제시함 (임상적)	Doll 외의 '자료 선정, 자료 제시' /독서 전 활동
(도서) 읽기	- 텍스트 속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탐색하며, 자신의 감정을 구분함으로써 감정 인식 능력을 형성함	Hynes 외의 '인식' /동일시의 원리 /독서 중 활동
	- 감정을 유발한 요인과 등장인물의 대처 방식을 분석하고,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그 결과를 비교·성찰함	Hynes 외의 '고찰, 병치' /카타르시스의 원리 /독서 중 활동
	- 독서 경험을 참여자의 일상 경험과 연결하여 감정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함	Hynes의 '자기적용' /통찰의 원리 /독서 중 활동
(읽기 후) 표현하기	- 대상 도서를 읽고 자신이 통찰한 결과 내용을 말,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서의 정화를 경험함	/독서 후 활동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치료의 단계를 제안하고 모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서치료는 문헌정보학, 교육학, 상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실제적인 현장 사례와 그 성과를 이뤘지만 특정한 교육 조건(학교도서관 등)에 한하여 이론화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내용이 많았다(배경임, 2023, 1690-1691).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로 제안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독서치료의 명칭, 유형, 원리 등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먼저 독서치료는 명칭에서 의료 임상적 개념인 치료(治療)가 적절한가에 대한 용어의 적절성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 목적에 비추어보면 용어 문제는 부차적인 사항이며, 학교 현장은 교과나 비교과에 구분하지 않고 독서치료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독서치료의 유형은 대상, 상호작용,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의 독서치료는 문제 상황에 대한 예방적 활동으로써 발달적 독서치료를, 치료적 활동으로써 임상적 독서치료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집단지도의 방법을 적용한 발달적 독서치료와 개별(모듬)지도의 방법을 적용한 임상적 독서치료로 구분해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독서치료의 주요한 원리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원리’로 구분하는데는 공통이었다.

독서치료는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도서관의 독서치료는 문제 유형을 고려한 상황별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미리 구축하거나 책읽기 후 다양한 독서후 활동을 실시하며, 외부 기관과 연계한 임상적 치료까지도 운영하는 것을 나타냈다. 독서치료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을 학교 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교육적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에 상호작용 놀이나 대상 도서의 필사 활동, 그리고 시 쓰기 활동과 같이 독서 활동을 프로그램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에 활용된 대상 도서는 단위 학교의 환경, 조건을 적용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학교밖 기관에서 개발한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활용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운영하는 사서교사는 독서치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앞선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내용을 포함해 독서치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묻는 것으로, 3개 영역, 10개 문항을 개발해 전국 단위의 사서교사 조직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양성과정에서 독서치료 관련 지식을 배우거나 실질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며 단위 학교에서 독서치료를 교육 프로그램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의 주제로서 사회정서 영역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를 제안하는데 찾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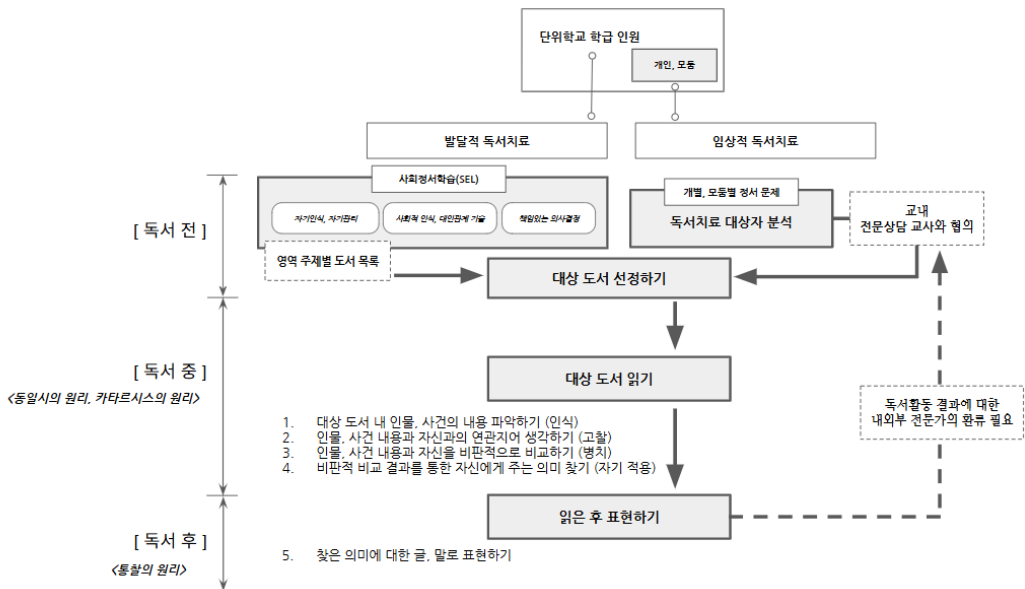
첫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자아 이해, 감정 인식, 관계 형성 등 사회정서적 영역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교육적 성격의 발달적 독서치료를 배경으로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가 임상적 개입이라기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대상이 되는 정서적 영역은 CASEL의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였다. 사회정서학습은 교육학, 심리학 등을 포함한 교육계에서 폭넓게 연구되며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하위 다섯 개 영역(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은 단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정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로서 사회정서학습이 적합한가를 묻는 사서교사 대상 설문에도 의사 결정을 제외한 영역 전반이 긍정적으로 답한 점도 반영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발달적 독서치료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Rubin(1979, 243)을 학교도서관에 적용하고(〈표 5〉 참조) 기존의 발달적 독서치료 모형(Hynes와 Hynes-Berry, Doll과 Doll)의 단계 구조를 통합하였다. 여기에 독서치료의 원리(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와 독서 과정(독서 전, 중, 후)을 더하여 학교도서관 맥락에 적합한 발달적 독서치료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의 발달적 독서치료 모형은 독서후 활동이 빠졌지만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에는 독서 이후 ‘표현하기’ 단계를 포함하였다. 이는 독서 경험이 내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 정화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며, 독서치료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상으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제안된 시사점을 반영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할 독서치료의 단계를 모형화하면 〈그림 5〉와 같다. 이 연구는 ‘발달적 독서치료의 단계’를 내용으로 하지만 최종 모형에는 임상적 독서치료 단계를 추가하였다. 임상적 독서치료는 반드시 교내 전문상담교사나 학교밖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임상적 독서치료는 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림 5〉에 반영된 수준은 ‘발달적 독서치료 단계’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이 한계임을 밝힌다.



〈그림 5〉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 모형(안)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이 독서치료의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는 사회정서적 역량과 연계한 독서치료가 학생의 정서적 성장과 관계 형성, 자기 이해에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CASEL의 사회정서 학습(SEL)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한 연구(김채영 외, 2024)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정서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의 교육적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 상황을 고려한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정서적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에 학교밖 기관의 독서치료 도서 목록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정서학습의 하위 영역별로 도서 목록을 개발하고 학교도서관계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 기획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적 독서치료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서치료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사서교사 대상 독서치료의 인식을 묻는 설문 결과는 독서치료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했으나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독서치료 관련 연수 개설시 높은 응답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를 발달적 독서치료로 규정했으므로 다양한 학교현장 사례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현장 적용 결과를 표준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안)을 제안하는 것 역시 후속 연구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발달적 독서치료뿐만 아니라 임상적 독서치료를 위한 교내의 전문가·전문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활동이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 전문적 치료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임상적 독서치료는 교내 전문상담교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 도서 목록의 구축 과정이나 학급별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도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간 협력체계는 높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발달적 독서치료의 단계를 적용한 다양한 현장 사례 연구와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과정은 주로 문헌 분석과 인식 조사에 기반해 이론적 모형으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한계이다. 이에 후속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 단계에 따라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사회정서학습과 연계한 발달적 독서치료로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하기-선정하기-읽기-표현하기'의 단계로 제안한 점과 학교도서관이 학습 지원 공간을 넘어 정서적 안전 기지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과 사회정서학습 역량을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독서치료의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활동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정서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와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에서의 독서치료에 발달적 독서치료뿐만 아니라 임상적 독서치료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정서학습 영역에 근거한 독서치료 도서 목록의 구축과 공유, 그리고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수의 운영을 후속 활동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권정희 (2023).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고등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 김은승, 조미아 (2017).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157-18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2.157>
- 김정근 (2005).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독서치료의 현 단계. 도서관문화, 46(2), 46-49.
- 김채영, 임정훈, 이종욱 (2024). 초등 사서교사의 사회정서학습 실천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4), 67-9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4.067>
- 배경임 (2023).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의 비교 분석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7(10), 1685-1696.
<http://dx.doi.org/10.33097/JNCTA.2023.07.10.1685>
- 백재은 (2022).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인식·현황 조사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371-39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371>
-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서울시교육청 (2025. 9. 29.). 서울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 증진 캠페인. 출처: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28&q_bbsDocNo=20250929172143628
- 윤의연 (2025). 독서치료 연구 동향 분석: 1960-2024년 리뷰 및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 77, 167-207. <http://dx.doi.org/10.17095/JRR.2025.77.5>
- 이환주, 오영섭 (2021). 학교생활 관련 독서치료 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1년~2020년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8, 291-326.
<http://dx.doi.org/10.17095/JRR.2021.58.10>
- 정호선, 조미아 (202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5-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2.005>
- 최숙기, 김세화 (2022).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독서치료연구*, 14(1), 131-153. <http://dx.doi.org/10.35398/job.2022.14.1.131>
- 최운 (2022).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필사 중심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 최지은 (2023). 학교도서관의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5).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정서교육. *교육개발*, 234(봄호). 출처:
<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selectJournalForm.do?plNum0=15909>
-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2024). *독서치유론*. 대구: 태일사.
- 홍명아, 심원식 (2025). 학교도서관 안전 기지 기능에 관한 사서 인식의 탐색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2(3), 87-11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3.087>
-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황금숙 (2005). 국내 독서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 Bišćan, F. & Krpan, K. (2023).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among children and bibliotherapy in the library: an approach based on the traditional stories. *Knjižnica*, 67(1-2), 121-135. <https://doi.org/10.55741/knj.67.1-2.7>
- CASEL (2026). What Is the CASEL Framework?.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vailable:
<https://casel.org/fundamentals-of-sel/what-is-the-casel-framework/>
- Doll, B. &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Gladding, S. T. & Gladding, C. (1991). The ABCs of bibliotherapy for school counselors. *The School Counselor*, 39(1), 7-13.
- Hayes, J. (2023, July 17-21). School libraries supporting wellbeing through the use of

- bibliotherapy. Proceedings of the 51st IASL Annual Conference, Rome, Italy.
-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Lack, C. R. (1985). Can bibliotherapy go public?. *Collection and Building*, 7(1), 27-32. <https://doi.org/10.1108/eb023177>
- Loh, C. E. & Binny, A. L. (2024). 'I use the library sometimes just to lose myself': school libraries supporting students' wellbeing and flourishing. *IFLA Journal*.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03400352241276840>
- Merga, M. K. (2022). *School Libraries Supporting Literacy and Wellbeing*. London: Facet Publishing.
- OECD (2015).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 Rubin, R. J. (1979). Uses of bibliotherapy in response to the 1970s. *Library Trends*, 28(2), 239-252.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Kyung-Im (2023).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7(10), 1685-1696. <http://dx.doi.org/10.33097/JNCTA.2023.07.10.1685>
- Baek, Jae-Eun (2022). A study on perception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bibliotherapy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371-39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371>
- Byun, Woo-Yeoul (2015). *Understanding Reading Educa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Choi, Ji-Eun (2023). *A Study on Strategies for Activating Developmental Bibliotherapy Programs in School Libraries: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hoi, Sook-Ki & Kim, Se-Hwa (2022). A study on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using topic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Bibliotherapy*, 14(1), 131-153.

- <http://dx.doi.org/10.35398/job.2022.14.1.131>
- Choi, Un (2022).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ranscription-Oriented Bibliotherapy Program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 Hong, Hyun-Jin, Noh, Young-Hee, & Kim, Dong-Seok (2021). A study on status and necessity of the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Hong, Myeong-A & Shim, Won-Sik (2025). An exploratory study on school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school library as a secure b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3), 87-11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3.087>
- Hwang, Geum-Suk (2005).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117-130.
- Jeong, Ho-Seon & Cho, Mi-Ah (2020).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play oriented intera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5-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2.005>
- Kim, Chae-Yong, Lim, Jeong-Hoon, & Lee, Jong-Wook (2024). Perception of the social emotional learning practi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4), 67-9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4.067>
- Kim, Eun-Seung & Cho, Mi-Ah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school adaptation ability of maladjust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2), 157-18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4.051>
- Kim, Jeong-Geun (2005). Kim Jeonggeun's bibliotherapy story- the current stage of bibliotherapy. *Library Culture*, 46(2), 46-49.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5). Social-emotional educ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Education Development*, 234(1). Available:
<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selectJournalForm.do?plNum0=15909>
- Korean Reading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2024). *Reading Therapy Theory*. Daegu: Taeilsa.

- Kwon, Jeong-Hee (202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Biblio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 Lee, Hwan-Ju & Oh, Young-Sup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related to school life: focusing on dissertations from 2011 to 2020. *Reading Research*, 58, 291-326. <http://dx.doi.org/10.17095/JRR.2021.58.10>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5, September 29). Seoul student mental health (life respect) promotion campaign. Available: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28&q_bbsDocNo=20250929172143628
- Yoon, Ui-Yeon (2025).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from 1960 to 2024: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and meta-analyses. *Reading Research*, 77, 167-207. <http://dx.doi.org/10.17095/JRR.2025.77.5>

